

상에 도시계획도로 공사 수년째 ‘질끔질끔’

대유랜드 입구-하예동 도로 확포장 사업 구간 예산확보 어려워 속도 못내 주민들 ‘통행에 불편 겪어’



서귀포시 상예복지타운 인근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현장. 이태윤기자

서귀포시 상예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찾은 서귀포시 상예복지타운 인근 도로. 이 지역은 서귀포시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유랜드 입구-하예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포함된 구간이다. 현장을 찾았을 당시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았지만, 사업 구간에는 대형 굴삭기가 세워져 있고 공사 자재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공사 자재 주변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또한 해당 사업 구간은 마을 안길 내에 커브가 이어지는 구간으로 차량 주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공사 현장에는 플라스틱

드럼통만 배치돼 있고 경광등 등 야간을 대비한 안전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오성주 상예1동마을회장은 수년째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 회장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담당하는 현장소장도

공사가 진행된 이후 여러번 교체됐다”며 “매번 교체될 때 마다 현장소장에게 도로와 관련 마을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지만 (현장소장 교체) 반복되는 상황에 답답하지만 하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공사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공사 현장에서 흙탕물이 마을

안까지 내려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며칠 진행하는 것이라면 어느날 다시 공사를 중단해 버린다”며 “최소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내 상예복지타운 인근 구간만이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예산 100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대유랜드입구-하예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이후 올해까지 해당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2억원으로 시는 매년 예산을 신청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99필지 중 아직 수용이 안된 15필지에 대한 토지보상협의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는 8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매년 예산을 받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 진행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은 현장을 찾아 확인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태양계 행성 만나러 가볼까 28일 서귀포과학문화축전

서귀포시는 태풍으로 연기됐던 ‘2019 서귀포과학문화축전’을 오는 28일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태양계 행성을 만나는 즐거운 과학체험’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서귀포시와 제주융합과학교육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천문연구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번개과학체험관이 참여한다.

과학체험부스, 과학미술공연(김민형 미술사), 전파천문학강연(한국천문연구원 이상현 박사), 에어로켓·오르니톨터 만들기, 천체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축전을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또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천체사진 전시회,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탐라전파천문대 관측시설 견학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내가 디자인하는 디아이와이(DIY) 비행기 만들기, 번개과학체험관에서는 반데그라프를 통한 정전기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문미숙기자

“비자림로 공사 환경저감대책 보완해야”

영산강유역환경청 최근 요청도, 조사반 편성… 추가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환경저감대책 보완을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7월 25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결과에 따른 환경저감대책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보완 요청을 해오며 따른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청한 주요 내용은 공사지역 주변 식생에 대한 추가 조사와 검토다.

이에 제주도는 동·식물 관계전문가들로 정밀조사반을 편성해 10월부터 천미천 주변 삼림지역과 3구간 주변 동·식물상 및 생태특성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제3구간(거센세미오름~침오름 사

이)의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가능 여부(박스형·육교형)에 대해서도 조사·검토하게 된다.

또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비자림로 주변 천미천에서 멸종위기식물 2급 으름난초가 발견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통한 식생조사 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조사로 비자림로 공사재개는 늦춰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보완된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수도량 실시간으로…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

오라·서호·강정동 시범 운영

제주시 오라동과 서귀포시 서호동·강정동 관내 수도미터 계량기 1000대가 디지털 수도미터기로 교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을 활용한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에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은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수도미터기 및 통신장비를 활용해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침 방식이다.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검침 관리를 통해 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량 조회, 누수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수용가의 물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수도 민원 해결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지역은 제주시 오라동, 서귀포시 서호·강정동 중 행정시와 논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맞벌이 등으로 낮에 검침이 어려운 가구와 누수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가구 1000대를 선정해 12월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2019 제주꽃사랑 ⑬ 제주꽃사랑



제주꽃사랑은 지난 7월부터 제주시 월평동에 육묘 하우스를 만들어 국화분재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지역·정착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꽃사랑 제공

“국화 함께 가꾸며 마음 나눠요”

지역·정착주민으로 구성 월평에 육묘하우스 운영 국화분재 방법 등 교육

“국화분재는 일반분재와는 달리 일년 안에 멋진 분재의 모습을 갖춰요. 십여년 동안 일여년 일여 일여 안에 일어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또 오랜 시간을 거쳐야 하는 보통의 분재보다 국화분재는 늘 잔손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집중되는 마음도 갖게 돼요. 국화를 삼복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개체를 늘려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나눔의 마음도 갖게 됩니다.”

제주꽃사랑의 총무이자 기획자인 김미경 씨는 국화분재의 매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제주꽃사랑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농업기술원 국화분재 교육과정에서 분재를 배우고 있는 교육생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다.

제주의 자연에 반해 2013년부터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는 김 총무는 농업기술원에서 다양한 수업, 마스터가드너, 국화분재기술을 배우던 중 다양한 원예용품이나 비료 등을 조금씩 팔지 않아서 지금의 회원들과 모여 분재를 하면서 나누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생각보다 꽃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없다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일반인들과도 쉽게 나눌 수 있게 만들자는 의견을 모아 제주꽃사랑을 결성했다.

김 총무는 “분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정착주민들이 국화라는 소재 하나로 단합이 돼 서로 좋은 교류를 많이 갖게 된다”며 “이런 교류를 통해 정착주민들은 제주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되고 지역주민들은 정착주민들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반년 정도면 완성되는 국화분재의 특성상, 6개월 후에는 전시회를 통해 서로 키운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12회 표선중학교 총동문회 단합 체육대회

초청의 말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풍성한 가을걷이를 하는 계절에 귀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12회 표선중학교 총동문회 단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19년 9월 29일(일요일) 오전 9시

장 소 표선생활체육관

경기종목 축구·피구·발목어달리기·줄다리기·장작꽃놀이·노래자랑

※ 연락처 : 회장 김영일 010-3693-1170, 총무 한종협 010-3693-0504

2019년 9월

표선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김영일

제11회 서육개리 학구민 단합대회

모십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그윽한 仲秋好節에 다음과 같이 서육개리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향우회원, 무릉초, 신도초, 무릉동초, 영락초, 그리고 무릉중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석바랍니다. 꼭 읍서에.

다 음

■ 일 시 : 2019년 9월 29일(일) 10:00

■ 장 소 : 무릉초·중학교 교정

□ 회 장 : 이창립

□ 부회장 : 임창완, 이윤오, 홍대순, 양병식, 강승화, 문태중, 김동철, 이정식, 박춘자, 신금복, 이춘자, 이연희, 이은순, 현진희

□ 감 사 : 홍종환, 김계일

□ 연락처 : 사무국장 강성방 010-3696-2395
총무부장 진성철 010-4691-4076

대형버스운영 08:00 종합경기장 게이트볼장 앞 출발, 08:10 신제주 남녕고 앞 출발

2019. 9.

무릉초·중학교 총동창회

회 장 이 창 립